書舍餘話

辛夕汀 〈詩人〉

세상에는 背信으로 榮華를 누리고, 信義를 지키는데서 不幸을 招來하는 例도 없으리라.

信義를 지키는 데서 榮華를 누리고, 信義를 못했기에 당근질을 당하고 그 때문에 목숨을 거두었지만, 申叔舟는 背信을 참였기에 歷代를 두고 榮華를 누렸다.

그러나, 成三問은 우리들 가슴에 자리 잡고 있지만, 申叔舟를 가슴에 지니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기에 申叔舟의 夫人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는 逸話가 전해지고 있지 않은가.

그 때은 침으로 하여금 썩어빠진 정신에 侵蝕感과 羞恥感을 주자는데 있었다는 것이리라.

志操를 喪失한 인간이란, 정신에 重傷을 입어도 남의 이치럼 시치밀 때고 다시 일어나 고개를 치드는 것이 아니라 그 때문에 처드는 것이 아닐 것이다. 그 때문에 스럽기에 그 사람은 그 것도 아니요, 否定할 수도 없다.

침의 意義가 있고 價値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에 그 사람은 「나 폴레옹」에게 달려가서 頌詩를 奉呈한 것을 사랑한은 까마득히 잊고 산다.

志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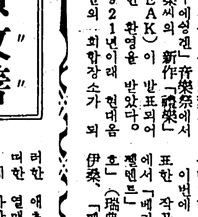
一個 征服狂의 馬蹄下에 어찌 頌詩를 바치랴

아직도 우리나라 「파우스트」 같은 傑作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은 것이 없다. 그러나, 四大詩聖이 못 된지언정 원수의 말발굽 아래 頌詩를 바치는 주착을 부릴 수는 없지 않은가.

音樂 — 音樂

西獨에 떨친 우리音樂

尹伊桑씨 『禮樂』 絶讚받아



〈尹伊桑씨〉

10月22일부터 23일까지 西獨의 「도나우에싱겐」 音樂祭에서 尹伊桑씨의 新作 「禮樂」(REAK)이 발표되어 열띤 환영을 받았다.

1921년이래 현대음악가들의 회합장소가 되어 온 도나우에싱겐 「현대미르」가 자기의 作品을 초연한 이래 「쉰베르그」 「웨베른」 등이 있고 「불레」 「슈토크하우센」 「노논」 「펜데레키」 등이 역시 유명해진곳인데 이곳에서 가장 많은 음악제는 세계적인 성을 얻어 유명해진곳인데 이 음악제는 전문가들이 가장 많은 유명하지만 또 가장 좁은 음악제로도 이름있다.

이번에 초연作品을 발표한 작곡가들은 室內樂에서 「베커」(獨逸) 「코젤렌트」(瑞典) 관현악에 尹伊桑씨의 「첼레가라」(이탈리아) 「닐손」(瑞典) 그리고 「파울레」(스페인) 등이었다.

예년처럼 평론가 4백여명의 저명한 작곡가 방송국 음악관계자 보도책임자 등이 함께 참석하여 과격하고도 신랑한 청중들의 판단아래 금년의 음악제는 「바벤」 地方의 방송교향악단(상임지휘 「에른네스트·부르」)의연주로 진행되었다. 그중에 尹伊桑씨의 「禮樂」이 가장 많은 환영을 받았으며 연주가 끝나자 작곡가는 네번이나 무대위로 불려나와 열광적인 환호속에서 답례해야했다. 과장경은데 불인된力感 이것은주로 높이휘날렸다. 이날 연주 때 각신문에 보도 되었다. 「禮樂」은 내년 「베를린」 음악제에서 「베를린」 교향악단에의해 다시 연주되리라고 하며 이고 藝術의 조화속에서 음악의 진보는 「베를린」의 강한생명력이 바로 여기에있는것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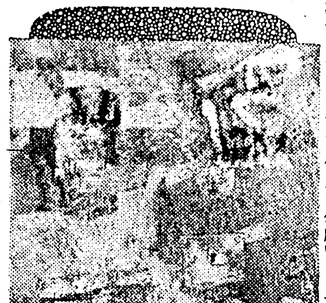
「지르너」의 강력한리더쉽은 演技는말할것도 상치무대 구석구석에스며드는것같았다. 그들이 스타 중점이아니고 앙상블에 있다는얘기 실감케했다.

우리나라의 관객에겐 조금앞서서 소개된 작곡자이기는했으나 그색조와 이런 음조분위에 해필요한것인가는 충분히 설명되었고 4막에 가서는 적절히 이용되었다. 그리고 연출의妙도무 균형은 대때로 「귀슬리는 형편이었다. 프로그램에명 기재되지 않아 이용되었다.

그러나 백역에서오는 음 「케가로」와 「수잔나」가 곧 결혼식을 올리려한다>

造形보다는 느낌의 世界

南寬서울展



「東洋의幻想2」 南寬個人展서

세계문화자유동맹 초대전은 제5회(14日~20日·藝總會館)를 맞이하면 서 일주의 체 전 개선은 이번 서 한 宿題다.

그 칫점을으로써 한 宿題다.

또 하나의 展覽會가있다. 12年만에 南寬伯의 個展을 갖는 것이다. 15日 서울 「東京畫廊」에서 열린다.

이 번 展示會의 「造形보다는 느낌의 世界」라는 제목이 뜻하는 것은 이 한다는 것,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 것이다. 그처럼 씨의 繪畫는 어디까지나 「繪畫的」이다. 물론 씨의 作品은 음악적이다. 한 눈에 들어오는 色彩의 값싼 효과는 없는듯하다. 어디까지나 소리없는 詩情이다. 흑간의 作品에서는 가없이번지는 「餘白의 詩」를 느낀다. 걷잡을수 없이 흐르는듯, 定着하는듯, 그속에서 「어 참하게 숨쉬는 듯한 「리듬」이 있다.

씨의 繪畫는 어떤 「新的」임을 자처하는 同展示會의 출품작과 비교해도 어긋나지 않는 것이다. 씨의 繪畫는 말로 풀 수 있는 것이다.

씨의 繪畫는 어떤 「造形」이냐 하는 것은 그 「造形」이 어떤 「造形」이냐 하는 것이다. 그 「造形」이